

나주시, 옛 제일병원 공공형 의료 인프라 구축

내·외과·정형외과 등 진료...100병상 이상 준종합병원급 개원 시, 응급실 운영조건으로 지원...영산포·남부권 주민 혜택 기대

나주시가 영산포와 남부권 주민들의 응급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형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나주시는 폐업 뒤 방치된 옛 영산포 제일병원을 지역 최초 민간 합동 공공형 보건 의료 인프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나주에서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모의료재단이 이 병원을 인수한 뒤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등 진료과목을 갖춘 100병상 이상 준종합병원급으로 개원하게 된다. 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된 응급실 운영,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문병원 활용 등을 조건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최소 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역 첫 사례인데다가 민간 병원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병원 운영상황, 지역사회 공감대 등을 보며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하 1층·지하 5층 규모(연면적 4583㎡)의 병원은 2002년 개원했으나 농촌인구 감소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2019년 폐업 뒤 방치돼 왔다. 영산포와 왕곡·세지·반남면 등 남부권 지역 주민

들은 응급 치료나 입원 치료를 위해서는 관내 또는 타지역 종합병원으로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윤병대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응급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민간 병원이지만 주민에게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정보 접근·편의성 강화

나주시가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민선 8기 시청 홈페이지(누리집)를 개편했다. 특히 시는 대표 포털 사이트로서 온라인 대민 창구 역할에 충실하고자 동영상 재생 등으로 느리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기존 메인 화면을 전면 교체했다. 누리집 메인은 ▲자주 찾는 서비스, ▲지금, 나주(오늘의 뉴스·포토갤러리 등 새 소식), ▲분야별 정보 및 이용자별 서비스, ▲소통하는 나주(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채널) 등 큰 틀에서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시는 또 스마트폰 등 어느 디지털기기로도 최적화된 화면에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디자인'을 적용했다. 여기에 '통합검색엔진'을 새롭게 도입해 22개 시 연관(패밀리티) 사이트 누리집의 콘텐츠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화순군 공무원, 여동생 업체에 수 억원 일감 몰아줘

상수도·토목사업 4억5000만원 수의계약...업체 불법 하도급 의혹도

화순군 재무과 계약 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 협의 과정에서 지역 우수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권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광주일보 2022년 12월 29일자 13면>인 가운데 이 공무원이 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 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광주일보가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지난 해 수의계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재무과장이 여동생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만 수의계약으로 15건 4억5000여만 원을 계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과장의 동생 A 씨는 지역에서 상수도사업과 토목사업을 하는 여성기업인으로 민선 8기 들어 수의계약한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수의계약'이라는 허점을 이용해 재무과장이 여동생에게 노골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 지역 동종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역 동종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지역 업체에서는 이미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을 마치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는 것인 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옳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계약한 업체가 발주 받은 공사들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수의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해야 할 재무과장이 인척과 지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난발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자체장인 군수와 감사팀이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알고도 모른 채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김한중 장성군수 소통 행보...군민과 만난다

오늘 진원면 등 6일간 11곳 순회 새해 군정방향 설명·주민 애로 정취

김한중 장성군수가 새해 소통 강화를 위해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장성군은 김한중 군수가 3일 진원면을 시작으로 10일까지 11개 읍·면을 찾아가 주민 의견을 경청한다고 2일 밝혔다. 하루 2개 읍·면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6일에 걸쳐 다수의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 군수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2023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읍·면별 현안사업 보고에 이어 주민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8기 장성군은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목표로 그간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김 군수의 소통 행보 역시 취임 초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1개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군정 방침과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읍·면별 역대명장 초청 간담회를 열어 선배 명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축적했다.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난해 열린 이장회의에 참석해 현안을 경청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한 층 더 가까운 자리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 발전의 주춧돌로 삼고자 마련했다"며 "새해에도 활발한 소통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장성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 샤인머스켓, 와인 변신 군, 스파클링와인 등 5종 개발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최근 강진샤인머스켓연구회 회원 및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강진산 포도를 이용한 화이트와인 및 스파클링와인 생산기술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연구수행기관인 (주)한국바이오양조연구소 김형호 부소장의 설명을 중심으로 추진 경과와 결과 보고 및 개발된 와인 시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강진산 고품질 샤인머스켓을 활용한 특산주 개발로 포도 생산부터 가공, 체험관광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수행됐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강진산 샤인머스켓을 이용한 화이트와인, 무가당 저알콜 화이트와인, '청수' 및 'MBA' 블랜딩 와인, 스파클링와인 등 총 5종의 와인을 개발했다. 강진샤인머스켓연구회 관계자는 "강진산 샤인머스켓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농가 소득 증대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지적재산권 권리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기술이전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고(故) 김석중 작가 문학비 제막식 가져

건립추진위, 장흥문예회관 앞에

'호담 김석중 작가 문학비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고(故) 김석중 작가 문학비 제막식을 유족과 장흥문학인들이 모인 가운데 장흥문화예술회관 앞 주차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김석중(1948~2021) 작가는 장흥군 부산면 용반리 출생으로 지병으로 지난 2021년 3월 12일 별세했다. 고인은 장흥별곡문학동인회 회장과 장흥문화원 이사·부원장, '장흥문화'誌 편집자, 장흥문화원

자료집 편집 강연에 참여했으며 민주화 운동 등 자신의 치열한 삶의 경험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며, 장흥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운동가, 장흥 문학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지역 장흥문학 발전을 선도해 왔다. 고인의 문학비에는 '평생에 걸쳐 써 내려간 그의 문학 끝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흥에 뿌리를 내린 이들의어제와 오늘이 있습니다. 오직 글을 통해 고향을 향한 사랑을 곁집이 쌓아 올린 그가 꼭꼭 눌러 쓴 두 글자 장흥을 마음으로 기억해 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측면에는 고인의 단편소설 일부분을 넣었다. /장흥=김용기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설 선물은 담양장터에서 저렴하게"

군, 농특산물 20% 특별 할인전

담양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계묘년 새해맞이 지역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 '담양장터'에서 설맞이 20%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담양장터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면적 150㎡에 담양군 가공식품 등을 온오프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으로,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는 담양군이, 판매장은 지역농산물 가공업체가 모여 담양장터 주식회사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담양장터에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 쌀을 포함한 지

역의 62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600여 개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한 치즈돈가스, 요거트, 오란다, 건강보조식품 등 담양산 식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행사기간 내 택배 주문은 1월 17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온라인(www.damyangmk.kr)과 모바일 앱 구매고객 중 9명의 구매량을 선정해 한우 선물세트, 대숲맑은 담양쌀 등을 증정하는 사은 행사도 진행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명절 선물 부담은 덜고 마음은 풍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품격 높은 담양 농특산물을 엄선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담양군, 가사문학관 연중 무료 개방

2023년 상반기까지 내부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담양군이 한국가사문학관(사진)을 연중 무료 개방한다. 한국가사문학관은 전국 유일의 가사 관련 문학관으로 지난 2000년 개관 이후 일반인은 물론 초·중·고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방문해 가사문학을 체험하고 학습하고 있다. 가사문학 전문계간지 '오늘의 가사문학'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국가사문학학술대회와 전국가사문학상송대회를 개최해 700년 전통의 가사문학 저변 확대와 창의적 계승, 발전에 애써 오고 있다. 또한 '전국 청소년 가사시 랩 대회'를 통해 가사학과 랩 음악을 접목, 가사의 현대화는 물론 청소년에게 가사문학의 매력을 알리는 행사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가사문학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한국가사문학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사작품으로는 연양정가 외 가사 18편 과 일동삼승도 등 전시품 473점, 목판 539점, 두루마리 1012필, 전적류 923권, 현대도서 1만8954권을 보유 전시되



고 있다. 담양군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까지 16억 원을 투자해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료개방 이후에 가사 백일장, 사생대회, 가사퀴즈, 탁본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담긴 한국가사문학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8억원 확보...3인가구 6만9000원 등 2148가구 혜택

강진군은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저소득층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식생활 지원을 위해 신선한 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전남에서는 장성군과 해남군이 사업을 진행했다. 강진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공모해, 2023년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했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총 2148가구에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또는 꾸러미 배송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이며,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5만 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매월 충전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쌓이지 않고 소멸된다. 농식품바우처 카드도 살 수 있는 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 잡곡, 꿀로 제한되어 있으며 농협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몰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